



최문순 언론노조위원장

1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출범식을 갖고 산별노조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로써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더 큰 추진력을 얻었고, 한국 노동운동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문순 언론노조 초대위원장을 만나 산별노조 건설에 얽힌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때: 2000. 11. 30(목)
- 곳: 언론노조 사무실
- 대담: 윤요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언론노조 출범을 축하합니다. 조직 현황부터 소개해주세요.

언론노조는 45개 단위노조에 조합원 1만 3천명으로, 기존 언론노련 70개 단위노조 조합원 1만 7천명의 80% 이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본부에는 20여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지요. 아직 지역본부 체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소속 사업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산, 광주 일부 지역에는 지역차원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입대상이 단위노조였지만, 이제는 언론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언론노련 시절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언론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된 게 88년 11월 26일이니까

정확히 12년 만에 산별노조 건설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9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96년에 한번 시도했었지요. 그 해 가을 EBS가 조합원 투표에서 방송사단일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는 등 분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안기부까지 개입한 사측의 공세로 KBS에서 2/3에 못 미치는 56%의 찬성률로 좌절됐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작업을 계속했고 전술도 더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우선 산별 차원에서 조직전환 찬반투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략' 사업장을 KBS, 부산일보, 스포츠조선으로 3개를 정했습니다. KBS는 최대사업장이고, 부산일보는 지방조직에다 가장 강한 조직이고, 스포츠조선은 촉발연문사라는 점을 고려했죠. 올 5월에 3개 조직에서 동시투표에 들어갔고, 이들 '바람잡이'를 시작으로 산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주요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나요?

96년에는 사측은 물론 정부도 압력을 가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측이 주로 방해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일보입니다. 편집국장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동하는 등 압력이 컸습니다. 중앙일보보인쇄노조는 다른 시안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산별노조 찬성투표를 한 다음날 모두 해고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조직 내부로는 연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6년에는 실패했는데, 올해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IMF 위기'가 조합원들에게 준 충격이 컸습니다. 근로조건 악화



최문순 위원장 약력

- 1984 MBC 입사
- 1994 MBC노조위원장
- 1996 낙하산시장 처지투쟁으로 해고
- 1997 복직
- 1998. 11월 언론노조 위원장
- 2000. 11월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
-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

는 물론 고용불안까지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96년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치밀한 계획도 한몫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간 조합원들 사이에 산별노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업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산별노조로서의 틀을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인력과 재정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훨씬 자유로워진 가입조건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지요. 또한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심합니다. 연봉 6천만원 받는 조합원이 있는가하면 월 2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개혁의 핵심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노련 12년의 역사는 '언론개혁투쟁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임단협이 투쟁 쟁점이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전에는 '군사독재'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본독재'가 문제입니다.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 하느냐가 언론개혁의 시금석입니다.

언론노조 안팎에서 10년 이상 언론개혁운동이 전개됐는데도 언론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론개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은 지배체제의 핵심기관입니다. 민간기업체 형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자본을 비롯한 지배층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언론입니다. 언론사주대자본-국가권력간의 유착관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언론입니다.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 일종의 '블랙홀'이죠. 사정이 이리하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힘으로는 버텨내기 불가능합니다. 반기를 드는 순간 바로 날라가 버리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체 민주세력이 조직된 힘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언론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CBS가 50일 이상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방송에서 그 소식을 보고들을 수 없습니다. 언론노동자 역시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인거지요.

대안은 없습니까?

결국 노동조합이 마지막 보루죠. 시민운동도 많은 활동을 했지만, 힘있는 버팀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언론노조 나아가 전체노동운동이 조직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문방송을 보십시오.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분열, 적대감, 분노, 배척, 소외, 차별, 물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해, 협력, 이해, 사랑, 통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논리도 없는 무지막지한 극우보수논리나 신자유주의 논리가 아무런 여과없이 활자화되고 방송을 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운동이 더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세력을 단결시킬 때 언론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언론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나요?

대표적인 것은 '신문개혁법'을 입법청원 한 겁니다. 편집권의 완전독립, 경영투명성 확보, 대주주 주식보유율 30% 이하로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초순에 농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연대기구도 있지만,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운동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화 공세 등의 외부 도전도 크고 조직 내부로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노동운동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도적 공간을 확보했지만, 조직률은 10% 남짓이고 140만 명만 노조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방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산별 체계의 강화라고 봅니다.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서둘러야지요. 산별조직들이 튼튼해져야 민주노총도 튼튼해집니다. 지금까지의 관성을 버리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품을 다 걷어내고 우리 운동을 평가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해서는 경선 보다 합의추대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선을 하기에는 조직풍토가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노조간부들이 언론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 언론이 있습니다.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여성, 환경 등도 언론에서 사회적 의제로 제대로 만들어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동형제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